



## The NEQ 엔이큐

Korean Contemporary Improvisational Music

“재즈와 국악을 매우 창조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지점의 음악을 만들어냈다.”

- 최규용,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The NEQ 는 2010 년 결성 당시 색소폰 연주자 손성제와 기타 연주자 정수욱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음악과 서양의 재즈를 단순한 결합이나 과거의 답습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아우르는 새로운 음악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결국 The NEQ 는 서로 전혀 다른 두 음악으로부터 '즉흥성'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적인 컨템포러리 음악을 만들어냈다. 첫 번째 앨범 "Chaosmos"(2010)는 음악적인 완성도와 탈장르, 탈국가적인 새로움을 인정받아 해외에 소개되기도 했으며, 이후 The NEQ 는 차세대 명창(국립극장)으로 선정된 김윤희와 함께 만든 두 번째 앨범 "Passing of Illusion"(2015)으로 제 13 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부문 크로스오버음반상을 수상했다. The NEQ 를 이끌고 있는 손성제와 정수욱은 재즈는 물론 대중음악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주자들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음악 스타일과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김윤희의 구성진 판소리 가락과 민요가 더해져 '재즈와 국악을 매우 창조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지점의 음악을 만들어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 년 제 7 회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에 선정되어 쇼케이스를 가진 The NEQ 는 이후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 초청받았고, 2016 년 5 월에는 프랑스 3 대 재즈 페스티벌 가운데 하나인 재즈슬레포미에(Jazz sous les Pommiers)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기립 박수 세례를 받아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음악임을 증명해 보였다.


손성제 | 색소폰

정수욱 | 기타, Sound FX

김윤희 | 판소리, 징, 팽과리

서수진 | 드럼

### Booking

Hub Music Agency, Hub Music Inc. 

Contact

담당 **박정연(Alice Park)** | [amadeus308@naver.com](mailto:amadeus308@naver.com) / 031 582 8138

총괄 **전승훈(Zeon)** | [shzeon@hubmusicagency.com](mailto:shzeon@hubmusicagency.com) / 031 582 8138 / 010 2615 8138

[www.facebook.com/TheNEQ](http://www.facebook.com/TheNEQ)



The NEQ 는 'Near East Quartet'의 줄임말이다. 오랜 기간 동안 컨템포러리 재즈와 한국 전통 음악 사이에 존재해왔던 음악적 결합에 대해 고민하던 아티스트들이 결성한 그룹이다. 2010 년 색소포니스트 손성제와 기타리스트 정수욱을 주축으로 베이시스트 이순용, 타악기 김동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같은해 1 집 앨범 "Chaosmos"를 발표했다. 이 음반은 해외도 소개되며 탈장르적인 새로운 음악 스타일과 독특한 사운드로 한국 재즈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에는 제 7 회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에 선정되어 쇼케이스를 가졌고,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인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하면서 국내외 음악계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5년 The NEQ 는 동양의 목소리 판소리와 서양의 타악기 드럼을 도입하여 새로운 음악 여정을 시작했다. 기존 멤버인 손성제와 정수욱은 차세대 명창 김윤희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자유로운 즉흥연주를 기반으로 컨템포러리 재즈 기법과 기존의 전통 국악 선율을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석한 음악을 선보였다. 2015년 6월에는 호주의 즉흥음악 협회인 SIMA(Sydney Improvisation Music Association) 초청으로 SIMA 가 운영하는 시드니 Sound Lounge 의 'international Winter Series'와 '2015 Brisbane International Jazz Festival' 무대에 올랐으며, 12월에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The 12th Penang Island International Jazz Festival'에 초청받아 공연을 펼쳤다. 국내에서는 2015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2015 북촌우리음악축제, 제 12 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등에 초청받았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 작은 음악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동안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미술관, 문예회관 등을 돌며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공연도 펼쳤다. 그리고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한 2016년 5월에는 프랑스 3대 재즈 축제 중 하나인 재즈슬레포미에(Jazz sous les pommiers)의 초청으로 유럽 관객을 만나 전석매진을 기록하며 기립 박수를 받았다.

2015년 10월에 발표한 2집 앨범 "PASSING OF ILLUSION"은 물레타령, 흥타령, 달타령 등 우리 전통의 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들을 비롯하여, 김소월의 시와 이직의 시조를 바탕으로한 창작곡 등 9곡이 수록되어 있다. The NEQ 는 이 음반으로 제 13 회 한국대중음악상 재즈&크로스오버 부문 최우수 크로스오버 연주상과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반상에 후보로 올랐으며, '재즈와 국악을 매우 창조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지점의 음악을 만들어냈다'라는 심사평과 함께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반상'을 수상했다. 또한 The NEQ 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레이블의 명가, ECM 과 음반 발매 계약을 맺고, 2016년 12월 녹음을 진행했으며, 몇 차례 추가 녹음을 거쳐, 2019년 발매를 앞두고 있다.

- 2011 제 7 회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선정  
Street Art-Plex Kumamoto (일본)
- 2014 중국 투어 - Beijing World Music Week, Beishan World Music Festival
- 2015 SIMA Sound Lounge 'International Winter Season' (호주)  
Brisbane International Jazz Festival (호주)  
제 12 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12<sup>th</sup> Penang Island Jazz Festival (말레이시아)
- 2016 Jazz sous les Pommiers(프랑스)  
제 13 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크로스오버음반'  
제 9 회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쇼케이스
- 2017 Street Art-Plex Kumamoto (일본)

- 동영상 링크

Passing of Illusion - 2016 서울아트마켓  
<https://youtu.be/ltWpgwLn94I>



## 손성제 Sung Jae Son

한국 재즈씬의 독보적인 색소포니스트



색소포니스트 겸 작곡가 손성제는 연세대 작곡과를 졸업 후 미국 보스턴 버클리 음대와 뉴욕 퀸즈칼리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Bill Pierce, George Garzone, Antonio Hart, Sir Roland Hana 에게서 사사하였다. 리더작으로는 2003년에는 21 세기 한국판 재즈 스탠더드라고 호평을 받으며 화제를 불러 모았던 그의 첫 리더작인 프로젝트 앨범 "누보송(Nouveau Son)"을 발표하였으며, 2006 년 솔로 앨범 "Repertoire &Memoir", 2007 년 2 집 앨범 "I'll be seeing you", 2008 년 "Em Seu Proprio Tempo"를 연이어 발표하였다. 2009 년부터는 월드뮤직 그룹 The NEQ 를 결성하여 재즈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협업을 시도하며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The NEQ 1 집 앨범 "Chaosmos"를 발표하였고, 2011년에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첫 앨범 "비의 비가"를 발표하여 그의 새로운 음악세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2014년에는 트리오 앨범 "A Farewell to an Unknown Friend", 2015년에는 영화 "그녀의 전설" OST와 The NEQ의 2 집 앨범 "Passing of Illusion"을 발표했다. 앨범 "Passing of Illusion"은 2016년 2월에 개최된 제 13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재즈&크로스오버 부문 최우수 크로스오버 연주와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반상 후보로 올라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반상을 수상했다. 현재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전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정수욱 Su Wuk Chung

기타리스트와 프로듀서를 오가는 뮤지션

1996년에 미국 보스턴 버클리 음대에서 연주/작곡과를 학사로 졸업한 뒤, 1998년 보스턴의 New England Conservatory 에서 재즈학 석사를 졸업한 기타리스트 정수욱은 John Abercrombie, Wayne Krantz, Mike Stern 등을 사사했으며,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작곡자, 교육자로 캐리어를 이어가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왔다. 주요 활동으로 전제덕(재즈 하모니카) 1~3 집, 루시드 폴 4 집, The NEQ 1 집, 재즈퓨전그룹 WAVE 5 집, 영화 음악 "8 번의 감정"(감독-성지혜) 등을 프로듀싱 및 작편곡 했으며, 김윤아(자우림), 정재형, 이문세, 박선주, 신호범, 김현철, BMK, 바비킴, 이소라, 손성제, 말로(Malo) 등 여러 아티스트들의 콘서트에서 연주했다. 해외 활동으로는 Tokyo Music Market(2005), Jakarta International Jazz Festival(2006), Kumamoto Streetplex Jazz festival(2011)에 초청되었다. 2015년에는 The NEQ 로 시드니의 Sound Lounge 에서 열린 International Winter Series 와 2015 Brisbane International Jazz Festival 에 초청되었으며, 2015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및 북촌우리음악축제에 초청받기도 했다. 현재는 호원대 전임교수 및 한양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예술대학, 동덕여대, 추계예대, 경희대 포스트모던학과 등 출강과 함께 Chick Corea, Gary Burton, Mike Stern, John Scofield, Scott Henderson 등 재즈 거장들의 워크샵 및 마스터클래스 진행을 맡기도 했다.



## 김윤희 Yul Hee Kim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판소리계의 떠오르는 신예



차세대 명창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윤희는 전통음악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와의 음악작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 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이기도 한 그녀는, 중앙대 국악대학 음악극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의집 민속반주단과 락음악단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악그룹 바라지와 컨템포러리 그룹 The NEQ 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수상경력으로는 2013 년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일반부 판소리에서 최우수상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남도민요경창대회 일반부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9 년 국립극장 차세대 명창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 년에는 광주브랜드공연 자스민광주, 2012 년에는 천차만별콘서트 바라지 공연 및 대상 수상, 2013 년에는 JTBC 소리의 신에 출연하기도 했다. 2014 년에는 해외문화원 패키지 프로그램 순회사업인 MosaiKOREA 에 참여하여 중국 등 아시아 4 개 도시 순회 공연을 했다. 2015 년에는 바라지와 The NEQ 로 중국 및 호주, 폴란드 및 헝가리 등 해외 우수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공연했으며, 국내에서는 여우락페스티벌 및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북촌우리음악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등에 초청받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서수진 Soojin Suh

다양한 분야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작곡가겸 드러머

동덕여대와 City College of New York 을 졸업한 드럼연주자 서수진은, 2000 년대 중반부터 한국 재즈씬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15 년에는 첫 리더작인 앨범 "The Moon In Your Hand"를 발표했다. '히라노 게이치로'의 소설 "달"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7 곡의 자작곡으로 이루어진 이 앨범은, 드럼 연주자로서는 드물게 훌륭한 작곡 실력을 보여준 것은 물론, 서수진만의 독특한 감성을 뒤흔던 연주로 들려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인의 활동 외에도, 정미조, 조정치, 박주원, 이한열 트리오, 남메리아 밴드 등 동료, 선배배들의 앨범 및 공연 세션으로 참여하며 폭넓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2016 년부터 The NEQ 의 멤버로 합류하여,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The NEQ 만의 독특한 음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